

서 울 대 사 램 들

SNU
MAGAZINE
VOL.57

이찬재 · 안경자 부부

지구과학교육과 ·
국어교육과 61학번
2019 웨비상 수상자



전통과 현재를 잇다

창의적인 학문의 전당이자 최고의 연구 기관으로
굳건한 신뢰를 받는 서울대학교.
전통과 다양성의 소중한 가치를 깊이 새기며 오늘의
눈으로 재해석 해나가는 서울대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 개의 해가 놓인 곳>, 2018, 종이에 실크스크린, 60×100cm, 최지원(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서울대사람들 57호 (2019년 8월)

발행인 오세정 편집인 강준호 자문위원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유겸(체육교육과), 박소정(경영학과), 박준완(GS칼텍스), 윤혜정(산림과학부), 이은주(언론정보학과), 이장섭(디자인학부), 임체영(통계학과), 정병설(국어국문학과), 조규진(기계항공공학부), 한규섭(언론정보학과)
제작 서울대학교 홍보팀(snupr2@snu.ac.kr) 기획 및 취재 정민호·박수정·박소영(홍보팀) 편집 및 디자인 홍디자인 02.6916.4400
사진 김창제, 유아라, 김경수(표지, SSSauna Studio)

Hanok Villages with Samsung Full HD TVs

Maria Tirnovanu (Harvard University), 2019 국제하계강좌 참가 학생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radition is not easy when it is hard to separate its positives from aspects of the past we want to leave behind. For me, it was especially difficult, however, to really understand something we learned this summer in my *Life In Contemporary Korea* class: Korea's debate (academic and not) between understanding its past as a history of success or as a history of *shame and struggle*.

Even as people say that Korea's past is too tumultuous to declare a win or as they consider the battles lost, seeing the shame, every time I come back, I see more of those who choose to focus instead on the ways people have taken an active role in fighting against those who seek to challenge their identity. While walking around the peaceful Jongmyo Shrine, I looked up to skyscrapers surrounding the forests, and thought they form a powerful synergy; the ancestors can look up to the sky and see the fruits of their hardships. When eating incredible Korean traditional food at Michelin-starred restaurants, when hearing 1960s songs sampled into K-pop, when watching movies in class that look back at historical events and force Korean people to reevaluate, rethink, and reidentify themselves with certain historical events, when sleeping in a hanok village with a Samsung Full HD TV, I always tell myself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only accept its traditions, but knows how to highlight them to blend seamlessly with the present.

I hope thus that in the difficult process of deciding what aspects of tradition belong in today's democratic Korea where all people have a voice, Koreans manage to look back, see the fruits of their hardships, understand others through their common past, and form empathy for those around them. As traditions are the ever-present pillars which pass through thousands of years, Korea should see its story not as a history of struggle *or* success, but a history of struggle *for* success.

잇고 싶은 과거 속에서 좋은 기억만 떠올리기 어렵다면,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한국의 과거가 성공의 역사인지 치욕과 투쟁의 역사인지에 대한 논쟁을 배웠던 <현대 한국의 삶과 문화> 수업이 특히 어려웠어요.

파란만장한 한국사를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기고 패배의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온 역사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단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종묘의 나무 사이를 걷다가 주변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을 바라보며 그 풍경이 지닌 큰 시너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땅의 조상들도 그 풍경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겪은 역경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미슐랭 스타로 선정된 식당에서 멋진 전통 한식을 맛보았고, 최신 K-pop에 삽입된 1960년대 한국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등장인물에게 이입해서 역사적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보았고, 삼성의 Full HD TV가 있는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한국이 훌륭하게 계승해온 전통을 현재에 조화롭게 섞어낼 줄 아는 나라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오늘 여러분의 나라에 어떤 전통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역사적으로 한국이 겪은 고난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직접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를 토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은 수천 년에 걸쳐 변함없이 존재하는 기둥입니다. 한국의 긴 스토리를 '투쟁 아니면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공을 위한 투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1

SNU의 창

“ I always tell myself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does not only accept its traditions, but knows how to highlight them to blend seamlessly with the present. ”

Maria Tirnovanu
2019 국제하계강좌 참가,
하버드대학교 학생

24

연구 노트

인간과 쥐의 유전자가 비슷하단 것을 아시나요?
마우스 연구로 비만과 당뇨의 첫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성제경 수의과대학 교수



04

커버스토리

“ 우리나라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아야한다. 애들아! ”

이찬재·안경자 동문 부부
(지구과학교육 61·국어교육 61)

30

기부와 나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이종기 상영무역 회장 (경영학 69)

8-15

인터뷰

“ 전통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과정이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힘이 전통 안에 있어요. ”

허윤정 국악과 교수

32

마음을 잇는 이야기

“ 어쩌면 기부는 깊게 생각해야만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

기부자와 수혜자의 말



16-23

소식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춘 지식인을 길러낼 수업을 둘러보고, SNU in the EU 프로그램으로 값진 여름방학을 보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품격과 덕망으로 서울대를 빛낸 제12회 발전공로상 수상자를 소개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러 전국을 누빈 소식을 살펴봅니다.

2019
The Webby Award,
Social 부분의
Art&Culture
수상자는
여든을 바라보는
안경자·이찬재
동문 부부.
오늘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에서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인지,
한국의 뿌리는
무엇인지 다정한
그림과 글로
들려준다.

옛 것이 있어야

새 것도 있단다



70대 노부부, 인플루언서 되다

1963년 사범대학 캠퍼스의 시화전에서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안경자 동문의 '사과'라는 시에, 지구과학교육과 이찬재 동문이 그림을 그리며 맺어진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 그리고 50여 년이 흐른 2015년부터 세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다시 그때처럼 이찬재 동문이 그림을 그리고, 안경자 동문이 글을 쓴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손주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인스타그램(@drawings_for_my_grandchildren)에 올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게시물은 900여 개, 팔로워는 무려 39만여 명. 초저녁 공원의 풍경, 대학 시절에 대한 단상, K-pop의 인기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채워진 피드에는 추석이면 햇곡식으로 차레를 지내는 관습, 한국 전쟁을 겪은 공포,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이야기 등도 도란도란 어우러진다. 손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던 SNS의 파급력은 놀라웠다. BBC, NBC, 가디언 등에 보도되며 세계 각국에 팬이 생겼다. 여러 언어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뜻은 모두 통한다. '어여쁜 이야기를 나눠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요.' 등이다. 안경자, 이찬재 동문은 작년 9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외교를 주제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 호랑이 날

한반도가 옛날에 호랑이 나라였던 것을 아니? 그래서 서울 올림픽 팬 동물의 왕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했어.



“이전까지 외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공공외교라는 단어도 생소했습니다. 다만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의 풍속과 역사를 그렸는데 세계인들이 공감해주었잖아요. 그제야 우리가 해오는 일이 공공외교일 수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이찬재)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안경자, 이찬재 동문은 올해 5월, 2019 웨비상을 수상했다. 무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 등 내로라하는 기관과 경쟁을 거쳐 선정단의 심사를 거친 Art&Culture 본상*과 이용자의 투표로 결정되는 People's Voice**의 주인공이 된 것.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결속력이 희미해진 시대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라던 시절의 이야기를 SNS에 남기며 가족끼리 애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동서를 막론하고 감동을 주는 특별한 힘이 느껴졌나 봐요.”(안경자)

오랜 전통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린 부부는 마흔이 되던 해에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다. 반평생 한 나라에서 살았으니, 나머지 반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자는 모험심 가득한 선택이었다. 한국과는 다른 삶을 기대했지만 안경자 동문은 그곳에서도 국어 선생님이 되었다. 상파울루의 한국학교가 설립되며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민 온 아이들과 교포 2, 3세 그리고 브라질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장까지 지냈고 2017년에 이르러 한인 사회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외국에서 모국어를 가르치니 한반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 먼 땅에서 한식을 먹고 또 한글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통은 퇴색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할 뿐이죠.”(안경자)

36년간의 브라질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부부에



● 강강술래

옛날부터 새해 첫 보름달이 크고 둥글게 뜨면 여자들이 모두 나와 손잡고 노래하며 신나게 빙빙 돌았다고 한다. 강강술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되었단다.



The Webby Awards

IADAS(국제 디지털 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며 웹 미디어 유형에 따라 우수한 플랫폼을 매년 선정하는 상. 웹 환경이 발전하며 상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2019년 제23회 시상식에서는 여덟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다.

● Social - Art&Culture Webby Winner

안경자, 이찬재 부부는 주최 측이 선정한 2019 소셜 부문의 아트&컬처 수상자가 되었다. 다섯 단어의 자기소개 영상 속 부부의 멘트는 “For all grandparents and children.”

●● People's Voice

이용자 투표 기간 내내 Drawings For My Grandchildren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선두를 내어주었다가 종료 이틀을 앞두고 역전으로 수상자가 되었다.

게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때론 낯선 곳이었다. 새로운 것이 가치가 있는 만큼 옛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변치 않길, 걱정이 앞섰다. 브라질에서도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달던 부부에게 한국의 국경일 풍경은 못내 서운하기도 했다. 그래서 3월의 첫째 날, 인스타그램에 3.1운동의 의미를 다뤘다. 말미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아야 한다. 애들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SNS를 본 한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함께 달았으면 하는 마음도 깃들었다. ‘국기를 계양합시다’라는 무미건조한 말 대신 게시했던 애뜻한 그림과 글은 가장 많은 공감 수, 21.6천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늘 SNS에 올릴 소재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직에 있을 때나 자식을 기를 때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른의 행동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지요.”(이찬재)

호기심과 에너지가 샘솟는 70대의 부부는 뒤쳐져가는 세대라는 편견을 거절한다. 시대의 흐름과 소통하며 전통적인 우리 가치를 되새기는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그리고 한 토막의 그림과 글 깊숙한 곳에는 단단하고 깨끗한 이 시대 어른의 가르침이 있다.

안경자 · 이찬재 동문 부부(국어교육과 61 · 지구과학교육과 61)는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 브라질로 이민을 떠났다가 36년 만인 지난 201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스타그램 계정 'drawings_for_my_grandchildren'을 운영하며 여러 전시를 열고 에세이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를 펴냈다. 2019 Webby Awards에 이름을 올렸다.



거문고의 진보적인 에너지



허윤정
국악과 교수

이토록 현대적인 악기

“거문고는 하면 할수록 구조도 음색도 초현대적인 악기에요. 보수적인 동시에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거문고로 현대적인 언어를 습득한 것은 필연적이었죠.”

창작 음악과 더불어 즉흥 음악 등을 거문고로 타며 실험을 거듭했다.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 크로스 오버는 서로 변화하여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지 한쪽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생겼고 국악기와 일렉트로닉 기타로 구성된 그룹 블랙스트링을 2012년 결성했다. 장르는 규정할 수 없다. ‘경계 없는 음악’이라는 해외 음악계의 평처럼 블랙스트링은 해외를 타깃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이 낯설고 생경한 소리가 아니라 신비로우면서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익숙한 장르가 되도록 활동한다.

“국악은 리듬감이 강하고 강렬한 음악입니다. 명상적인 동양 음악을 예상한 외국 관객의 선입견을 깨는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이름을 알려가던 2016년, 유럽 메이저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발매했다. 아시아 음악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연주하는 비서구권 음악을 ACT가 내보인 것은 최초였다. 게다가 다섯 장의 정규음반을 계약한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매 후에는 송라인즈 뮤직 어워드 수상의 성과도 이뤘다. 그리고 올 9월, 2집 발매를 앞두고 있다. 1집이 공연의 음반화였다면 2집은 보다 정제된 음악을 담는다. 국악으로 걷는 새로운 길 위에서 허윤정 교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기대가 실린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악기를 21세기에 연주하고 있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바로 거문고라고 생각해요.

연주자와 창작자, 교육자의 삶

해외 무대에 창작자의 자세로 임한다면 국내에서는 연주자의 자세가 요구되는 무대에 자주 오른다. 연주력과 연주법을 개발해 음악적인 지평을 넓히는 것 또한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중요한 몫이기 때문이다. 실험적인 시도와 집요한 접근에는 관객이 거문고 원형의 소리까지 찾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의 이수자이기도 한 허윤정 교수가 가장 사랑하는 거문고 소리는 산조. 19세기 말에 탄생한 산조는 국악기의 독주 장르로 창작자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 “유교를 대표하던 거문고로 민속 음악인 산조를 탄 것은 혁명적인 당대의 분위기를 상징해요.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뤘다면 산조는 대중음악이 될 수 있었죠. 새로운 류파가 계속 나와야 산조의 생명력도 이어져요. 제계 산조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세계만 탐구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시간이지만 클래식과 전위를 오가는 허윤정 교수.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또한 분명하다. “이 음악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국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악기가 곧 역사이고 자신이기에 대를 이어가야만 하죠. 게다가 요즘은 교육과 현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모교에서 함께 하고 싶었어요.”

음악은 삶과 분리되는 장르가 아니기에 허윤정 교수는 시대의 감수성을 연주하면서도 거문고 본연의 모습을 지켜내는 역할의 소중함 또한 잊지 않는다. “전통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과정이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힘이 전통 안에 있어요. 전통은 제계 가장 준엄한 선생님이면서 가장 따뜻한 조연자입니다.”

블랙스트링

국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2년 결성된 4인조 그룹. 거문고, 대금, 일렉 기타 그리고 노래 및 타악기로 구성된다. 2016년 첫 앨범 〈Mask Dance〉 발매 후, 올 9월 2집 〈Karma〉 발매를 앞두고 있다.



전통문화, 오늘날의 놀이

600년을 가로지르는 페스티벌

사물놀이에 매료되어 전통문화의 길로 들어선 30년 남짓, 예술감독 주재연 동문의 2019년은 두 축제로 가득 찬다. 지난 5월 궁중문화축전을 치르고 10월에 열릴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후에는 다시 내년 궁중문화축전 계획에 접어든다. “올해 궁중문화축전을 맡으며 궁의 역사와 공간이 지닌 진정한 미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중 문화와 민속 문화를 번갈아 다룰 수 있어 제겐 행운입니다. 조선 시대 광화문은 궁중 문화와 민속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장소였죠. 의미를 살려 이번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 두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계획 중입니다.”

오늘날의 어법 속에 전통문화를 녹여내는 것이 주재연 동문의 화두다. 축제라는 플랫폼으로 대중들이 전통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여러 예술 장르를 혼합하는 고민이 뒤따른다. 궁중문화축전에서는 시민 배우 백 명이 덕수궁 구석구석 옮겨 다니며 대한제국의 자취를 되짚어보는 뮤지컬을 기획했고,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는 10대들에게 스트릿 댄스로 아리랑을 재해석하게 했다. “책상 앞에서 10대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쳐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춤을 아리랑으로 취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접근하죠. 멀찍이 전시된 전통문화가 아닌 피부에 닿는 놀 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는 록 밴드가 참가하는 ‘광화문뮤직페스티벌’ 프로그램도 있다. 록 밴드가 무대에 서는 조건은 창작 아리랑을 공연하는 것. 한국의 모든 뮤지션이 각자의 아리랑을 가지길 바라는 주재연 동문은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을 거쳐 간 밴드가 다른 무대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던 모습을 보람된 순간으로 손꼽는다.

전통이란 이유로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시류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류의 뿌리는 결국 전통문화

주재연 동문의 학부 전공은 화학공학. 록 음악을 좋아해 음악 다방 DJ로 아르바이트도 했던 공학도는 인문대학과 사회대학 수업이 좋았다. 진로를 고민하던 1992년, 우연히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접했다. 전통 음악의 새로운 매력에 반해 무작정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찾았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들판의 농악이 어떻게 무대 위의 멋진 레파토리가 되었는지 놀라웠습니다. 사물놀이가 곧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법인화와 해외 투어 등의 성장을 함께하며 다양한 전통 공연 예술을 접할수록 국악을 모르고 살아온 부끄러움이 앞섰다. 주재연 동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물놀이에서 판소리로 번졌다. 국내 관객마저 어렵게 느끼는 판소리가 해외에서 통할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유럽의 관객은 환호했다. 여러 캐릭터를 도맡아 몇 시간이고 홀로 창을 하는 진귀한 모습은 오페라 이상의 감동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그렇게 판소리 다섯마당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했다.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한국의 오리지널리티에 관심을 갖는 이유죠. 해외 공연을 하며 우리도 몰랐던 우리 전통의 자부심을 많이 배웠습니다.”

한류의 원조는 전통문화라는 주재연 동문. 지금 한국 문화의 뿌리는 결국 전통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K-pop의 파급력이 큰 지금이야말로 국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전략적으로 끌어 낼 때라는 분명한 목소리에 전통문화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묻어난다.

서울아리랑 페스티벌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공공 축제. 광화문 일대에서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지훈
한국어교육센터

조현미
TEPS센터

명민정
언어능력측정센터

언어 학습의 처음과 끝에서



언어를 향한 학구열로 늘 북적이는 곳

언어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반영된 살아있는 역사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3년 어학연구소로 발족,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승격되어 올해 개원 56주년을 맞았다.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TEPS센터, 언어능력측정센터, 언어교육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센터에서 180여 명의 구성원이 땀 흘리는 큰 규모의 언어교육원은 각 센터에서 세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서울대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 국가 공인 언어능력 측정, 언어교육 학술지의 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의 일부라고 여기며 10년 전부터 언어교육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외국어교육센터 장지훈)
서울대 가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뒷받침하는 외국어교육센터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강좌를 진행하고 번역·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교정 서비스를 통해 학내 구성원이 연구 및 발표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때 가치를 더욱 빛낸다. 외국어교육센터가 한국인을 위한 기관이라면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전담한다.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1년에 3천여 명의 연수생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모인다. “매년 ‘외교관 한국어 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국력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애정을 가진 외국인에게 우리 언어를 교육할 수 있어 기쁩니다.”(한국어교육센터 이지훈)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언어 시험과 연구의 모든 역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인 어학 능력 측정 기관의 역할 또한 맡고 있다. TEPS는 언어교육원이 개발한 영어 능력 측정 시험으로 규모는 물론 높은 신뢰도, 변별력을 자랑한다. 1999년 처음 시행된 TEPS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공인 시험을 다루는 곳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강박적인 습관이 생겼지만 업무의 긴장을 놓을 수는 없죠.”(TEPS센터 조현미)

TEPS 외에도 언어교육원은 다양한 외국어 능력 시험을 개발한다. 언어능력측정센터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평가 시험인 SNULT(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를 연구 및 개발 중이다. “SNULT는 한국인의 외국어 능력 평가에 최적화되어있어요. 외국어 구사 능력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요소까지도 아우르죠. 복잡한 개발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긴 만큼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고 나면 대단히 뿌듯해요.”(언어능력측정센터 명민정)

또한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를 중심으로 언어학 전문 학술지 <어학연구>를 언어교육연구센터에서 발간하며 학문적인 연구도 축적해오고 있다. 언어교육원 안에서도 센터마다 업무의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함께 일하기가 늘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언어와 교육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협업하며 언어교육원과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단과대별 맞춤형 특별강좌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꾸준히 집필하는 등 오늘도 언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수업도 있습니다

- <교사양성과정> 한 학기 12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국어교원을 양성
- <소그룹 맞춤형교육> 2~5인의 서울대 구성원이 필요한 영어 교육을 의뢰하면 목적에 맞는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

함께 마음을 보듬어가는 대화의 힘

학생창업팀 봄그늘 (김소영 중어중문학과 15학번 · 김승환 사회복지학과 14학번)



봄그늘, 시각장애인에게 선물한 직업

36%에 그치는 장애인 취업률 중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8.1%로 가장 낮다. 어렵사리 일 자리를 구하더라도 정안인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어 고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을 만들면 어떨까? 익명이 보장된 상담 서비스 ‘블라인드 마음보듬’을 제공하는 학생 창업팀 ‘봄그늘’이 탄생하게 된 계기다. 창업팀이 수익을 좇기보다 시각장애인의 직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니,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우선되는 가치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장애는 고유한 특성을 걸림돌로 인식하는 단어죠. 때문에 이윤 추구가 우선되는 전통적인 관점의 비즈니스와 목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의 특성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적으로도 강점을 가지고 출발선에 서는 것이잖아요.”(김소영)

봄그늘은 암막 환경을 조성하고 시각장애인이 ‘마음보듬사’가 되어 내담자를 맞는다. 칠혹 같은 어둠 속, 시각장애인은 비교적 익숙한 환경이지만 내담자는 표정이나 제스처에 신경 쓰지 않고 이완된 상태로 오롯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게 된다. 봄그늘은 환경 조성뿐 아니라 마음보듬사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전문상담사와 함께 만들었고, 교육 후 실무에 투입되고도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역량을 꾸준히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다 마음보듬사로 일하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제야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모습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김승환)

전통이 소중한 이유는 현명한 선택을 유추할 수 있는 오래된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을 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정답으로 여기느냐는 스스로의 몫이잖아요.

당신의 그늘진 마음에 봄을

2017년 시작된 봄그늘은 여러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시너지를 낸다. 작년에 서울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올 1월에는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챔피언스리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화 직업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팀이지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당연한 개인적인 고민과도 맞물렸다. “자주 겪는 스트레스에 비해 건강한 해소 방법은 많지 않죠. 우울감으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려 해도 비용과 인식에서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기 위해 마음보듬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김승환)

그동안 봄그늘을 거쳐 간 내담자는 160명 내외.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봄그늘은 지속가능성을 꿈꾼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찾는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상표등록을 마쳤고 올해는 ‘마음보듬사’를 민간자격으로 등록,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또 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름을 알려가고 있다. “미래에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각장애인이 봄그늘의 운영 주체가 되길 바라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특화 직업 카테고리에 마음보듬사가 포함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할 때면 마음보듬 서비스를 찾는 것이 당연해지는 날을 꿈꿉니다.”(김소영)

봄그늘 이용해보고 싶다면!

홈페이지(maeumbodeum.com)에 접속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후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세요. <신림점> 관악구 신림로21길 39 F2 <신대방점> 관악구 신사로14길 19 B2



전공 X 융합적 사고 = 실천하는 지식인

강의실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미래의 지식인을 길러내는 수업이 신설되었다. 전공 분야에 발을 딛고 세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세 가지의 강의를 소개한다.



창업에서 혁신을 배우는 미래 의료인 혁신, 나도 할 수 있다

의과대학

의대에 창업 수업이 처음으로 정규개설 되었다. <혁신, 나도 할 수 있다>는 창업하는 방법을 다루기 보다는 혁신적 사고방법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킨다.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며 혁신,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관을 함양한 미래 선도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혁신가의 사고 방법', '사회혁신', '전략의 단순화', '수요창출' 네 개의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창업 기업 인바디, 스카이랩스, 야놀자 등의 핵심 관계자가 특강사로 함께한다. 학생들은 특강 전 후로 탐색 활동과 성찰 활동을 진행하고 이러한 혁신가들과 직접 네트워킹 하면서 문제 기반 사고와 실천법을 학습하게 된다.

강의 노트

- "혁신가의 비전 세팅, 무엇을 왜 하는지 분명히 하라."
- "복잡한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
- "혁신가는 어디로든 간다."

미래 도시를 짓는 새로운 방법 스마트도시공학입문

공과대학

미래의 도시를 설계할 때,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 학문을 살펴보는 수업 <스마트도시공학입문>. 지금 이 순간 산업 현장에서 다뤄지는 도시공학의 전반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센서&IoT 등 4차 산업을 촉발한 요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인다. 또한 분야별 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스마트도시공학의 동향을 직접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강도 진행된다. 강의를 통해 미래의 건축가를 꿈꾸는 공학도들은 스마트도시공학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익히고, 4차 산업의 요체가 되는 기술을 이해하여 융합적 사고를 배우게 된다.

교수님 한마디

"환경분석 방법과 문제 도출 방식을 습득하여 도시공학도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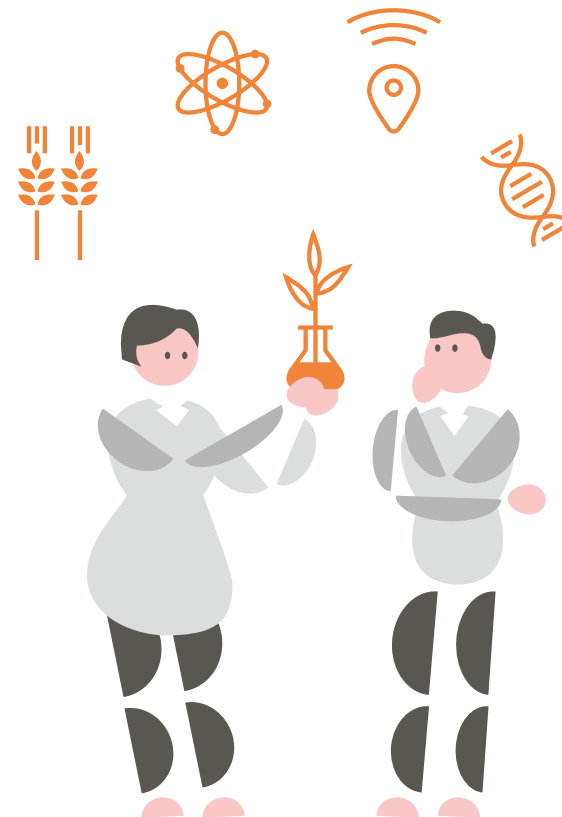
새 시대의 농업에 요구되는 자세 4차산업혁명과 농업

농업생명과학대학

4차 산업혁명과 농업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농생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산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며 새로운 산업적 기획의 토대를 제공하는 수업 <4차산업혁명과 농업>은 두 학기에 걸쳐진다.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속 농업 기술과 사업 모델을 이해하도록 마케팅의 기초를 농업 관점에서 접근한다. 전략 수립에서 필요한 환경 변화 분석을 비롯해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등 마케팅의 구성요소를 배운다. 심화 수업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새로운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가치를 창출, 전달하고 획득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강의 엿보기

- 2주 회사 비전, 목적, 목표 및 실습
- 9주 포지셔닝 전략과 브랜드 및 실습
- 14주 애그테크 스타트업 전문가 특강



여름방학 EU 탐방기

지구
반대편
유럽 3개국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SNU in the World'는 올여름 EU 방문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주간 유럽연합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김준현(경제학부 18학번), 노지혜(윤리교육과 17학번) 학생에게 듣는다.



DAY 1-2, 4-11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 EU본부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저희는 브뤼셀자유대학교(VUB)의 강의를 듣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VUB 강의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어요. 특히 유로존의 재정위기 심화는 이른 통합 때문이 아니라 대응에 합심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통합 때문이라는 강연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EU의 기구를 방문하면서는 정치 현장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방문이 특별했어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동북아시아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펴는 반면 EU는 민주주의 증진과 굿 거버넌스 정착을 지향한다는 차이를 배우며 사회 문제의 해석과 접근법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거든요. 아울러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EU의 경제협력력이 큰 틀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중소기업 간 협력, IT 산업 협력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들을 수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DAY 3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EU의 핵심기구 중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자리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향했습니다. 유럽 의회의 선거 기간과 일정이 겹쳐서 저희는 운 좋게 총선거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여태껏 멀리서 바라보며 정치는 거창하고 막연한 행위라고 여겨왔는데 선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며 정치 역시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의 복잡한 논리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유럽의회 투어에 앞선 브리핑에서 접한 자라나는 어린이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번 투표에 참여하길 독려했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또 유럽의회의 대변인 특강에서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이 주제였는데 저널리즘의 문제가 범세계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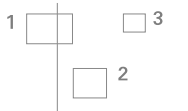
DAY 12

룩셈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가 함께 제정하는 EU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다루는 사건의 범위가 개인 자격으로 확대되며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재판장 내부에는 바닥과 판사석의 높이를 동등하게 설치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방문을 끝으로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각자의 의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지구 반대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유럽연합이 인접한 국가들이 모인 이익 집단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SNU in the EU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켜내는 21세기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안목을 배울 수 있었어요.



- 1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
- 2 유럽의회에서 선거 참관 후 기념사진 촬영
- 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즐거운 한때



오늘의 서울대학교,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12 회 발전공로상 수상자

품격과 덕망으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해마다 발전공로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12회 발전공로상, 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의학과 약학의 발전을 위하여

오세경

1965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석·박사를 마친 후 연구원과 교수로 살아오신 오세경 선생님께서는 심근경색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면서도 후배들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두 달간 모교에 머무르시며 <약학개론> 특강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성과 의학의 발전에 학문적 가치가 막대한 고서 1,800여 권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시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큰 금액을 서울대학교에 쾌척하셨음에도 보스턴의 자택을 포함하여 선생님께서 소유한 것을 모두 기증하시기로 유증해주셨습니다.



<슈클라-오세경 문고>

1567년 판 라틴어 히포크라테스 전집, 벤자민 프랭클린 전집과 찰스 다윈 저서를 비롯한 고도서

1,800

 여권


<김평기 기금>

조성 시기

2009

년

기부액

20

 억 이상

세상을 떠난 동생의 뜻을 이어

김명희·신정희

자매이신 김명희·신정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의 동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생 故 김평기 현대위아 부회장님께서 작고하신 후 두 분 선생님 앞으로 상속된 귀한 유산과 함께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장학금으로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생전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던 고인을 기리며 후세에도 그 뜻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9년부터 동생의 이름을 명명한 장학금인 '김평기 기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故 김평기 부회장님의 유산은 고인께서 평생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으로 귀중한 의미를 더합니다.

* 신정희 선생님은 미국 시민권자로 결혼 후 남편의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문의 든든한 버팀목

손동준

1959년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셨고 현재 동일기연의 대표이사이신 손동준 선생님께서는 공학은 물론 기초 과학 분야의 발전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공과대학에 큰 금액을 보태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동일기연의 주식 2만 주 또한 모교에 기부하셨습니다. '손동준 장학 및 학술 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부터는 기초 과학에 뜻을 둔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마음을 쓰셨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비는 물론 생활비와 연구 활동비를 구분 없이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손동준 장학 및 학술 기금>

시행 시기

2013

년

누적 수혜액

3.5

 억여 원

누적 선발 인원

9

 명


전국 방방곡곡 미래 인재를 찾아라!

진학과 입학의 모든 것

이 순간에도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들. 혹시 잘못된
공부법이나 입시 정보로
해매지는 않을까?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가지고
서울대가 직접 찾아가 봤다.



1 서울

미래 인재의 나침반은 고등학교 선생님

이동형 지역 방문 교사 상담소

서울대학교는 내방 교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헤아려 내방 교사 상담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국을 누빈다. 2018년 3회 치러진 이동형 지역 방문 교사 상담소 프로그램은 올해 5회로 늘어났다. 4월부터 7월까지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부산에서 교사를 만나 교육 여건에 따른 진학 지도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 교육 프로그램 최적화 방안 등이 상담의 주를 이루었고 학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미래 인재들의 진로 탐색에 생길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총 233개의 고등학교 1,040명의 교사가 이동형 지역 방문 교사 상담소를 거쳐 갔다.



3 충청북도

1 부산

땅끝에서 만난 뜨거운 학구열

소외 지역 고교-대학 연계 세미나

농어촌, 도서 지역에서 학업에 열중한 미래 인재들이 교육의 기회와 입시 정보를 균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는 매년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올해는 5월 30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안좌고등학교를 방문해 1박 2일 동안 머무르며 학생은 물론 전라남도의 교육청 관계자 및 일반 고등학교 교사를 만났다. 학생들에게 달라진 입시 정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진로 고민을 상담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간담회와 연수를 마련해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고교-대학의 연계 협조 체제 구축에 힘썼다.

더 똑똑하게 공부하는 법 알기

3

진로·진학 길라잡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녀가 올바른 공부 습관을 지니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 서울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 교육청과 연계하여 진로·진학 길라잡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나섰다. 지난 5월 충북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제주, 전남을 비롯 수도권 두 곳에서 총 900명의 학부모를 만났다. 다섯 시간에 걸친 프로그램 중 진로 지도와 미래 교육을 주제로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강단에 오르기도 했다. 강연을 통해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학습력을 증진하는 법, 부모로서 올바르게 학습을 코칭하는 법을 안내했다. 서울대학교 19학번 신입생들이 스스로 겪은 바람직한 고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3 제주

2020 입학전형 온라인 설명회

3부작 절찬리 상영 중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 입학본부에서는 누구나 쉽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부터 새로운 입시 정보를 담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웹진 <아로리>, 동영상 콘텐츠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튜브 'SNU Admissions'까지.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 설명회 3부작' 영상을 볼 수 있다.

유전자 속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

함부로 버린 손톱을 들춰가 먹고 사람 행세를 하였다는 잘 알려진 전래동화가 있다. 이야기 속 사람으로 둔갑한 동물은 왜 하필 쥐였을까? 쥐와 인간의 유전자가 유사하다는 것을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얼마 전 우리 연구팀은 마우스 연구를 통해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위험성과 발병률이 급증하는 대사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 조절이 대사질환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명확한 작용 원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 연구팀은 선천 면역, 병원균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만 알려진 바이페린(Viperin) 단백질이 열 발생을 조절하여 지방 함량 조절과 대사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연구 과정 속, 바이페린 유전자가 제거된 마우스는 지방조직에서의 열 발생이 활성화되어 에너지가 소비되어 지방조직의 크기가 줄고 내당력(Glucose tolerance) 및 지방간(Fatty liver)과 같은 대사 질환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지방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저온 상태에서는 바이페린 단백질의 발

현이 증가하고 열 발생 작용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우스는 인간과 유전자가 95% 이상 동일하고 번식이 빠르며 세대별 수명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아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때문에 마우스는 19세기 후반 해부학의 시작부터 연구에 큰 도움을 주어왔다. 현대의 기초 의학 실험에서는 유전자의 생체 내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 특정 유전자를 변형 또는 제거한 유전자변형마우스(GEM)를 통해 해부, 생리, 병리적 질환 특성을 분석 및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유전자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마우스표현형컨소시엄(IMPC)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이다. 호주, 유럽, 미국 등의 19개 기관이 질병 극복을 위해 GEM을 제작하고 표현형 분석 데이터를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주축을 맡고 있는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이 IMPC의 국제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 연구원들은 모든 유전자 기능을 해독하여 질병을 극복하는 날을 고대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수의과 대학 성제경 교수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장



프랑스 파리 U7,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



7월 10일 파리정치대학에서 이틀간 진행된 U7-Alliance of World Universities Paris Summit에 오세정 총장이 특별회원으로 참석했다. 회담에 초청된 세계 각 대학의 총장들은

‘국제화와 국제 협력에 대한 대학의 역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노력’,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대학의 사회 참여와 기여’ 등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도

출하여 2019 U7 공식선언문을 제정했다. 오세정 총장은 발언 기회를 통해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불평등 해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했다. 그에 앞선 7월 1일부터 3일간은 중국 다론티에서 열린 ‘리더십 4.0: 세계화 신시대 성공의 길’을 주제로 한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 열린 세션과 비공개 세션에 두루 입회했다. 열린 세션에서는 대학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다보스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박사를 접견하였고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Nature의 편집장과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서울대학교의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 15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주최하는 제15회 언어교육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7월 18일 열렸다. 2004년부터 개최되어온 대회는 올해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에 재학 중인 7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예심을 통해 선발된 16명이 ‘나의 한국 생활,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을 주제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 국적의 소라비(Sourabhi) 학생이 ‘너



와 나의 연결고리’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인기상 2명으로 총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관객을 위한 행운권 추첨으로 풍성한 대회가 치러졌다.



최무영 교수
제3회 암곡학술상 수여

세계적인 생명과학자 신승일 박사의 호를 명명한 암곡학술상의 제3회 수상자에 최무영 교수가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신승일 박사가 2016년 쾌척한 기금으로 인문학의 소양을 갖춘 과학자 및 과학의 역사, 현대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지원하여 새로운 한국적 지식인의 표상을 정립하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는 학문적 토론의 장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올해의 수상자인 최무영 교수는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자 과학사 및 과

학철학 협동과정 겸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을 지향하는 물리학자로 정통과학의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탈핵 학교』 공저 등 철학 분야에서도 학문적 관심을 가지는 등 꾸준히 우수한 연구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5월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최무영 교수는 '과학, 세상을 보는 눈: 통합학문의 모색(Science, and eye to see the world: In search of integrated studies)'을 주제로 기념 강연을 가졌다.

서울대 싱크탱크,
대학혁신센터 출범

5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부 기획처 산하에 대학혁신센터가 설립됐다. 센터는 각 단과대학과 교수별로 흩어져 진행되어온 주요 사업과 전략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에 데이터를 통

4

낙성벤처밸리
타당성 조사 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함께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낙성벤처밸리' 사업이 연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낙성벤처밸리는 서울대학교 후문의 연구공원에서 낙성대로와 남부순환로 일대의 부지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이커페이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창업 앵커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대학교는 교내의 우수한 AI와 R&D 분야 등 인적·물적 자산을 기반으로 기술 기반 창업시드를 발굴하고, 기술창업 핵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에 전국 7개 지자체와 함께 최종 발표 평가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장기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합 관리하는 부서를 두었고 학내 정책 개발 등의 데이터 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원도 채용했다.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기획할 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국공립대들과 협력 과제를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6

XnTree와 글로벌 창업 협력
MOU 체결

7월 12일,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윤의준 단장과 영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XnTree의 천재원, Joe Kim 공동대표가 런던의 XnTree 본사에서 만났다. 글로벌 창업 협력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대학교의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과 학내 창업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적극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학생의 영국 내 창업 인턴십 참여, 학내 XnTree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 서울대학교 창업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 점차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창업 협력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재학생 10명은 XnTree 주관하에 유럽 최대 IT 및 핀테크 스타트업 입주공간인 Level39에서 4주간 예비창업자 교육, Level39 입주기업 인턴십, 아이디어 경진 대회, 영국 주요 창업 유관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XnTree는 런던의 Canary Wharf 금융지구를 세계적인 핀테크 및 스마트시티 허브로 탄생시킨 Level39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및 기술 투자 기업이다. 아울러 Level39는 2013년 Canary Wharf 금융 그룹이 출자해서 만든 1만 평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업무 용도의 공간을 지칭한다.



7

GIST와 AI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기선 총장은 지난 6월 5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만나 한국 AI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첫발을 함께 내디뎠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과 인력을 상호 교류하는 것은 물론 AI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교류 또한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세정 총장은 이번 광주과학기술원과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AI 기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부 는 행복이다

소액 기부로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만만한 기부'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누리는 작은
행복을 실천해온
지난 3년의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복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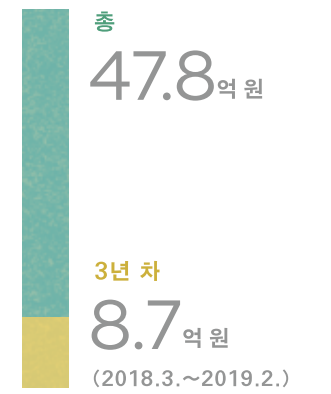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과 비슷한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단 것을 아시나요? 커피를 음미하듯 고요히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프랑스에선 오캄(Au calme), 허브를 키우며 소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방식을 스웨덴에서는 라곰(Lagom)이라 칭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장작불 옆에 앉아 핫초콜릿을 마시듯 안락한 분위기를 휘게(Hygge)라 부른다고요. 허황된 행복 대신 작은 순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모두 의미를 같이 합니다. 날마다 행복을 발견해 오롯이 느낀다면 생활은 더욱 충만해질 테니, 참 괜찮은 생활습관이지요.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내놓은 엄청난 금액만 기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더하는 소액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며 유의미한 행복을 느끼는 개개인이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머뭙니다. 서울대학교에도 '매일 만 명의 만 원이 선한 인재를 만든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많은 분들이 만만한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확실한 행복을 선물하는 만만한 기부가 올해로 3년을 맞았습니다.

기부자의 작은 행복이 학생에게 큰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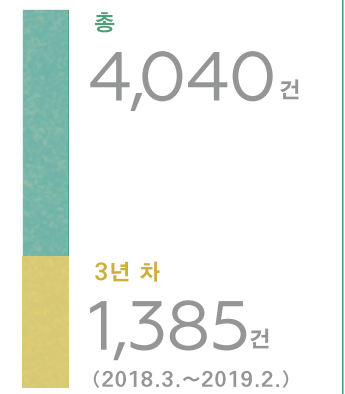
만만한 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입니다. 한 사람의 만 원이면 학생회관에서 '천원의 식사'를 열거니, 열 사람의 만 원이면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열두 시간을 한 명의 학생에게 선물하는 셈입니다. 2016년 3월 출범한 만만한 기부를 통해 지난 2학기까지 4,629명의 학생이 선한 인재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2018년에는 1,408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올 2월까지 4,040건의 기부자 참여가 집계, 그중 3년 차에 해당하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참여는 1,385건입니다. 모금액도 차곡차곡 쌓여 총 47억 80,473,168원이 올해 2월까지 모금되었고, 3년 차 모금액은 8억 67,634,425원입니다. 무엇보다 만만한 기부 캠페인은 평균 31,979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비율이 9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의 꾸준한 후원이 모여 선한 인재 장학금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었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선한 인재 장학금은 1,000억 원이 모이면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만한 기부는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1666-293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와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행복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행복으로 전해집니다. 만만한 기부를 통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숫자로 보는 만만한 기부 3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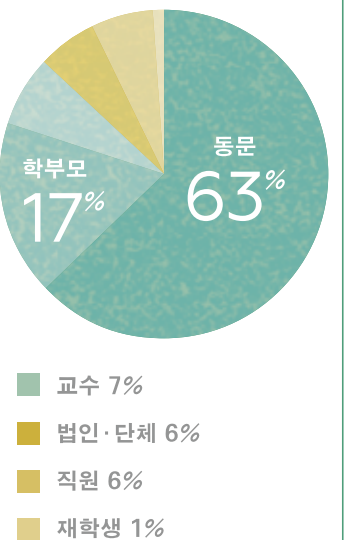
모금액



참여자 수



참여자 비율





선한 의도로 쌓아 올린 세월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이종기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이는
수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의 오너가
되어 후배들의 앞날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굳건한 신념의 바탕은 선한 의도

“한 사람의 일생에 넘치는 재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소비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부하는 보람은 그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작게나마 실현되는 계기니까요.”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도록 품어 온 이종기 회장의 좌우명 ‘자유자재 선의무적(自由自在 善意無敵)’. 편견 없이 사고하고 선의로 실행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결단을 내리기 전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 선의의 방향을 되묻고 확신으로 행동에 옮긴다. 그래서인지 이종기 회장은 앞장서는 일이 많다. 현재 1987년 설립한 상영무역의 회장이자 상과대학 총동창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 시절에는 <상대평론>의 편집장을 맡아 학생 경제지를 발행하고, 나서서 격문을 쓰기도 했다. 사업을 일군 후에는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에도 애정을 쏟기 시작했다. 최근 경제학부 발전기금으로 큰 금액을 쾌척했고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장학금을 내어놓았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부하는 일은 액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경영대학과 경제학부 학생들은 모두 과거 상과대학의 후배들이지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융합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 설립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제학부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앞선 연구를 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유자재 선의무적을 비유하자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덧붙이는 이종기 회장. 사사로운 욕심과 그릇된 유혹에 구애 받지 않고 선의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 사자와 같은 용감함이 매순간 필요할 터이다. 너그러운 이종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굳건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결단

1970년대, 격동의 시기를 보낸 우리나라. 놀라운 경제 성장의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지만 깨어있는 학생들은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줬다. 서울대학교 학생 운동의 가운데 이종기 회장의 젊은 시절이 있었다. 사회의식과 사상, 철학에 심취한 피 끓는 젊은이에게 당장의 취직이나 생계는 큰 걱정거리가 되지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훗날 교수가 되어 후학을 길러내거나 기자가 되어 사회 문제를 낱알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추상적인 열정이었지요.”

꽤기 있는 학생을 눈여겨보았던 한 선배는 갓 졸업한 이종기 회장을 본인의 회사로 불러들였고 총애하며 재목으로 키웠다. ‘노느니 일단 출근해보자’며 시작했던 회사 생활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우연히 들어섰지만 회사 생활이 재미있었습니다. 자금과 설비, 상품 개발과 유통 등 여러 요소를 통제하는 게 종합 행동 과학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업이야말로 국가 경제의 추진 모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기초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지요.”

회사 생활로 사업의 기초를 닦은 이종기 회장은 당시 사양길에 접어들던 가발 사업의 미래를 접쳤다. 미용 상품의 수요는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과 패션 디자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1987년 상영무역을 설립해 본인의 사업을 시작했다.

차츰 미국과 유럽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의 오너가 됐다.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던 젊은이는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반평생을 살아 내었다.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첫 선택보다 과정을 겪으며 내리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종기 회장은 1973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상영무역을 설립해 지금까지 키워왔다. 서울상대 동창회장을 맡아 선후배의 친목 도모에 앞장서고 있을 만큼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수차례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경제학부 오헌내후 모금 사업
오늘을 만드는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 시작, 2017년 11월
목표액, 400억 원

마음과 마음이 만나 울창한 숲을 일구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거센 비바람도 버티낼 힘을 지닙니다. 세상의 부침에도 꿈을 잃지 않고 끈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는 서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꺾지 않도록 도와준 소중한 손길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고국에서는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나 유학을 온 뒤로 스스로 그다지 특출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죠. 집안 형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한국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충당하기엔 많이 벅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해도 평범한 성적과 무난한 가정환경 때문인지 번번이 제외됐고 사각지대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이 되기 싫어서 박사과정에 합격하곤 생각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 무렵 신청한 장학금마저 제외된다면 학업을 포기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던 차에 '글로벌 우수 장학생'에 선발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받은 장학금은 제게 소중한 성공 경험이 되었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또 조급해지던 저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장학금을 얻으며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스스로가 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장학금 신청 과정은 제게 값진 인생 수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평온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학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유신우 |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튼튼한 울타리

1977년,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한 후 법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덕분에 졸업까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등록금은 학기당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농촌에서 나온 자란 제게 그때 10만 원은 큰 돈이었기에 장학금은 든든한 힘이 되었지요. 2014년 즈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던 왕상은 회장님을 수 소문했습니다. 더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 후회도 있었지만 은혜를 입고 공부한 제가 이렇게 성장하였다고, 감사를 전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총동창회보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실린 회보를 받던 날, 대학 시절 받은 은혜를 이제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기 후원으로 소액이나마 약정을 한 후, 한 달에 한 번 이체 확인 문자가 올릴 때마다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라는 크고 안전한 울타리를 선물 받았다면 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할 첫 번째 길은 후배들을 위해 모교의 발전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민구 | 법학과 동문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향한 본능

방송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나 불우한 이웃의 소식을 접하면 ARS 전화를 걸고 또 빈곤국의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니 기부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의무라고 믿어왔을 뿐이었지요. 학교에 기부를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몸담고 있는 직장, 서울대학교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 외에 순수한 마음을 나눈 적은 거의 없더군요. 그때 기부를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의 일부를 학교를 위해 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부는 깊게 생각해야만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손길이 하나들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되어 공동체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금 당장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인 | 시설관리국 직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행사



기부자 초청 캠퍼스 투어 성료

2019 기부자 초청 캠퍼스 투어가 4월 26일 관악수목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치러지는 행사에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여 명의 기부자와 가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호암교수회관에서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의 간단한 인사와 소개 후 관악수목원으로 옮겨 해설사와 함께 봄을 맞이한 관악산을 만끽했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1967년 교육과 연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 다양한 식물이 생장해 경관이 빼어나다. 생태 보존 구역으로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됐으나 최근 일부를 개방하였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매년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1억 원 이상 기부자들을 초청하여 캠퍼스 투어를 진행한다. 발전기금은 투어 참여자들의 후기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 밖에도 기부자 맞춤형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19. 05. 23.

이창우 경영대학 명예교수 (경영학과 74)

대학신문사·희망장학금 등 1억 원 출연

2019. 06. 27.

라움팰리스 (이진수 대표이사, SGS 30기)

이진수 환경대학원 장학금 1억 원 약정



서울대학교-메가스터디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제9회 서울대학교-메가스터디 장학금 수여식에서 780여 명의 장학생에게 약 8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행사는 지난 6월 18일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서양사학과 81) 회장과 오세정 총장, 정효지 학생처장,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 주요 인사와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메가스터디 장학금 조건을 달성한 학생 30여 명이 장학증서를 받은 후 경영대학 신보미 장학생의 답사가 있었다. 또한 오세정 총장이 손주은 회장에게 직접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손주은 회장은 지난 2010년 '메가스터디 팀플 장학금'을 시작하여 꾸준한 장학금 기부와 더불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 창의선도연구자 후원기금 등 약 44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쾌척해 오고 있다.

2019. 07. 17.

덕산에코빌 (박병주 대표)

사범대학 관사장학기금 1억 원 출연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입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입	유회진 기계설계학과 78입	이용희 태광사 회장	윤대섭 농공학과 49입
삼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SK	LG	한국전력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화	포스코	웅진	KT
신한금융	영원무역	현대자동차	부영	우리금융
미래국제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조천식 정치학과 45입	현대	롯데장학재단	풍산	동진세미켄
태영	IBK기업은행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악회	금호아시아나	두산
CJ	대림	한진	SPC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홍성대 수학과 57입	정영호 생물학과 47입·박양숙	이기영 前 의대 교수	김철·이옥자	신창재 의학과 72입
변무관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입	원재연 경영학과 82입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입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입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감사	유태용 토목공학과 50입	서정선 의학과 70입	주중광·히지영 의학대학 60입·화학과 66입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입
전은기·김은희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입·홍정희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입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입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입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입	김명희 기악과 김형찬의 모·신정희	박상운	박안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윤전수·이삼락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입	백추현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입	정윤환 임학과 56입	곽노섭 수학과 49입
신승일 화학과 57입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입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입	백형익·유근순	강옥채
김정식 건축학과 54입	민선식 경제학과 78입	박정혜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입	이필남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입	로이드선금협회 아시아	대우	스페코·삼익약기	카길애그리퓨리나
SK하이닉스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동원
플라톤아카데미	동양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대성
송원김영환장학재단	일진	메가스터디	형애장학회	한국가스공사
하나제약	현대중공업	녹십자	사회과학정보교육연구	용문장학회
생명보험협회	풍림무역	TOYOTA MOTOR CORP.	출판문화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쌍용양회공업	이연제약	환인제약주식회사
신풍제약	서울장학재단	진양제약	현승교육문화재단	NHN
천재교육	한국프릭벨	신라문화장학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단암장학재단
방일영문화재단	대우인터내셔널	코스맥스	세진에프알에스	농심
무한투자	STX			

*금액 순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강대희 (의학과 81입)	김학봉 (한영요업 회장)	오경민 (경제학과 67입)· 오선희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강영82출구명대이	방송문화진흥회	에리트베이지	한국거래소
강신자 (간호학과 59입)	김현 (의과대학 60입)	오세혁 (약학과 61입)	전상훈 (외교학과 78입)	경제학과 무역학과 82입 동기회	법대 39회 동문 일동	엑스베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광우 (행정학과 53입)	김형희 (간호학과 59입)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입)	전용필 (경영대학 정인근의 모)	계수산업	법대 84학번 동기회	연강재단	한국무역협회
고은숙 (약학과 60입)	김형준 (전자계산기공학과 78입)	오승환 (의학과 56입)	전익진 (지구환경과학부故 전재규의 부)	고려아연	법대 85학번 동기회	영림입업	한국화진총회
고은석 (물리학과 47입)	김예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호 · 오양호 (행정학과 69입· 법과대학 80입)	전해중 (중앙사학과 47졸)	공보조선	법대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오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재광 (지구과학교육과 동문의 부)	김희복 (생물교육과 75입)	오진규 (서양학과 76입)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공영토건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오우기	한국복합물류
고정택 (외교학과 62입)	나용인	유도진 (경영학과 76입)	정달철 (고고미술사학과 故 정은임의 부)	과천시야향장학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	한국산업은행
고주 노동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입)	육신화 (가정관리과 68입)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법무법인 비른	법무법인 비른	한국세표주연구재단
故 권명덕 변호사 유가족 (한자영· 권성현· 권성희)	남정현 (건축학과 57입)	육치준 가족 일동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옥의 부)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한국알루미늄
권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노명호 (토목공학과 61입)	우두현 (상학과 61입)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관사장학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	한국알웨이
곽수근 (경영학과 73입)	노태원 (물리학과 76입)	우철구 (영어영문학과 33입)	정재민 (약학과 77입)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케이씨엘	한국외국인학교
구범진 (중앙사학과 87입)	류무중 (중어중문학과 53입)	유동원(공업화학과 94입)· 소영순	정재선 (소비자기야동학과 93입)	광동제약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자산관리공사
故 구영택 교수 유가족	미국경 (공업교육과 68입)	유성숙 (고고미술사학과 故 김원용 교수의 부인)	정재준 (前 경보전기 부회장)	교보문고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한국전파기자국
구영배 (자원공학과 85입)	마인경 (지리학과 56입)	유효선 (의류학과 70입)	정종근	구원장학재단	벨벳	벨벳	한국증권금융
구인환 (국어교육과 50입)	문학진 (회화과 49입)	윤계성 (상학과 64입)	정중수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일동	유니베라	유니베라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구이일 (경제학과 61입)	문효숙 (조소과 92입)	윤덕우 (경제학과 58입)· 최덕자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국방과학연구소	유신	유신	한국국어
구재서	문희성· 박중식 (전기공학과 53입· 가정교육과 54입)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조동성 (경영학과 67입)	국영지연엔 G&M	유리세이븐스트리트	유리세이븐스트리트	한국투자신탁운용
권민 (식품영양학과 00입)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입)	윤세인 (수의학과 59입)	조명연	국제종합물류	유한재단	유한재단	한국투자증권
권세일 (화학부 동문의 부)	박영호 (불어불문학과 52입)	윤세익 (경제학과 57입)· 강예삼	조병치 (법학과 46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한신씨앙도공파설서공중중
권숙일 (물리천문학부 54입)	박민식· 박금옥 (수의과대학 65입· 체육교육과 63입)	윤여순	조상익 (EMBA 14입)	김영사	신법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신법대학 수학교육과 동문회	한성출판
권업태 (약학과 55입)	박병주 (약산스테이트 회장)	윤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입)	조석준 (행정학 57졸)	김정문일로에	부경양돈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한수통상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입)	박봉근 (수의학과 76입)	윤홍식· 최재영	조영식 (수의학과 80입)	까시미아	한일은행	한일은행	한일
권영태 (전기공학과 62입)	박승희 (지리학과 60입)	이진우 (기계공학과 74입)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	이시바이오	한일엔파워	한일엔파워	한일엔파워
금정태 (중교학과 62입)	박승구 (경제학과 87입)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입)	조중수 (건국대학교 교수)	이투스교육	한진칼	한진칼	한진칼
김건식 (법학과 73입)	박영숙 (간호학과 65입)	이광희 (지리학과 59입)	조환영 (상학과 43입)	삼승장학회	한진화학	한진화학	한진화학
김경국 (수 의학과 86입)	박영준 (전기공학과 71입)	이교일· 박명진 (기계공학과 60입· 불어불문학과 65입)	조형준 (미학과 65입)	삼양사	인선문화재단	인선문화재단	인선문화재단
김경현 (법학과 62입)	박중현 (교육행정학과 53입)	이구철 (물리학과 55입)	조흥문 (FNP,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기)	삼양제넥스	인촌기념회	인촌기념회	해성장학회
김경환 (외교학과 62입)	박용호 (수의학과 74입)	이금이 (약학과 55입)	조상근 교수 외 제자 12명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촌	인촌	해태
김광일 (경영학과 84입)	차麒주(가정관리과 82입)· 하상애· 박인숙· 박순영· 박노용	이기원 (농생명공학부 교수)	차영선	삼일문화재단	인탑스	인탑스	현대건설
김구 (정치학과 58입)	박종근 (전기공학과 69입)	이기춘 (가정교육과 61입)	채성기 (원자핵공학과 59입)	삼일회계법인	인텔파크	인텔파크	현대전자산업
김금순 (간호학과 68입)	박중근 (수의학과 58입)	이내근· 이홍자 (경제학과 55입· 약학과 63입)	채제현 (전기공학부 48입 故 채호석의 자)	삼전순악공업	일동제약	일동제약	현대투자증권
김기복· 신경은 (기계공학과 63입· 회학과 65입)	박중오 (영어영문학과 55입)	이동수	천문우 (약학과 61입)	삼한약박진공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현대카드
김기태 (회학과 58졸)	박중오 (영어영문학과 55입)	이민택 (외과대학 52입)	최규팔 (제약학과 70입)	다함넷	일산장학회	일산장학회	현대캐피탈
김난도 (소비자기야동학부 교수)	박중호 (제약학과 67입)	이명숙 (치과대학 62입)	최덕순 (간호학과 59입)	대교	일진장학회	일진장학회	현대캐피탈
김내옥 (조선공학과 76입)	박준 (법학과 73입)	이명현· 김귀천 (철학과 60입· 기악과 69입)	최만수 (기계공학과 76입)	대동공업	현우교회	현우교회	현대캐피탈
김동길 (화학교육과 57입)	故 박진환 (농경제학과 48입)	이문찬 (수의학과 66입)	최병선 (경제학부 교수)	대림대학	현우교회	현우교회	현우교회
김동춘· 이유미 (故 최충환의 가족)	박태교 (화학부 79입)	이병춘 (경제학과 55입)	최병오 (AFB,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7기)	데이인앤서 주식회사	재홍공사울대학교총동문회	재홍공사울대학교총동문회	출판스튜디오재단
김동춘 (회학과 48입) 외 故 오정주 교수 가족	박태우 (건축학과 64입)	이석 (기계공학과 80입)	최스미 (간호학과 76입)	대영 E&C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효성그룹
김두철 (전자공학과 66입)	박택진 (독어독문학과 80입)	이성규 (사학과 65입)	최애욱 (간호학과 50졸)	대영빌딩	한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연합회	휴맥스
김만규 (약학과 47입)	박한재 (중앙사학과 69입)	이성형 (정치학과 82입)	최윤재 (속신학과 73입)	대우건설	정공산업	정공산업	충민재단
김병기 (기니아르센터 화학)	배옥자 (성삼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이순원 (가정교육과 54입)	최재열 (조소과 최민주의 부)	대우기전공업	정민	정민	AMP 63기 일동
김병홍 (회화과 74입)	백종철 (농공학과 54입)	이순자 (마드리실내미단 이순자단장)	최정욱 (화학공학과 49입)	대우엔지니어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MP 64기 일동
김상현 (사법학과 82입)	법대 48회 졸업생	이순형 (정치외교학과 70입)	최정운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우재단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AMP 65기 일동
김상현 (영어영문학과· 기계항공공학부 동문의 부)	변대규 (제어계속공학과 79입)	이신두 (물리학과 76입)	최창원 (심리학과 83입)	대우테크	정현재단	정현재단	AMP 66기 일동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입)	변성운 (경제학과 91입)	이영은 (사회학과 故 김재식의 부인)	최화형 외 3명	대우테크	제14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	제14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과정	AMP 67기 일동
김선화(정자) (국악과 60입)	변주선 (영어교육과 60입)	이영희 (김태원의 모)	최원자 (임학과 故 윤관운의 부인)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제너시스	제너시스	AMP 68기 일동
김성배 (영어영문학과 63입)	서문자 (간호학과 63입)	하영구 (무역학과 72입)	홍원자 (임학과 故 윤관운의 부인)	대한사료	저스텍	저스텍	AMP 69기 일동
김성일 (임학과 76입)	서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한규범 (AMP 42기)	하영구 (무역학과 72입)	대한수의사회	조비정농장학재단	조비정농장학재단	AMP 70기 일동
김수이 (경제학부 92입)	서정우 (더림 대표)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한규범 (AMP 42기)	대한유화	종근당	종근당	AMP 71기 일동
김수호· 박경희 (금융공학과 70입· 간호학과 71입)	서진 (간호학과 56입)	한기준 (의학과 52입)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대한통운	종로구장학회	종로구장학회	AMP 72기 일동
김순근 (의학과 60입)	설학인 (섬유공학과 53입)	한동연 (경영학과 85입)	한기준 (의학과 52입)	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총화장학회	총화장학회	AMP 73기 일동
김순원 (응용화학과 64입)	성낙인 (제26대 총장)	한성복 (사회학과 56입)	한동연 (경영학과 85입)	대한사료	총문화포럼	총문화포럼	AMP 74기 일동
김양근 (IFP, 미래지도자인문학과정 2기)	손경식 (법학과 57입)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한성복 (사회학과 56입)	대한수업사회	성남시장학회	성남시장학회	AMP 75기 일동
김연택 (경제학과 故 김태성 교수의 부)	손원준· 송은빈 (경영학과 96입· 심리학과 99입)	한옥희 (회학과 79입)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대한통운	성원장학회	성원장학회	AMP 76기 일동
김연호 (화학공학과 71입)	손주은 (서양사학과 81입)	한정희 외 3명	한옥희 (회학과 79입)	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성원문화재단	성원문화재단	AMP 77기 일동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입)· 김천송	손창조 (사회학과 71입)	홍원자 (임학과 故 윤관운의 부인)	한정희· 김재애 (행정학과 61입· 법학과 61입)	대한사료	세무법인 조이	세무법인 조이	AMP 78기 일동
김영구 (치의학과 71입)	송두영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하영구 (무역학과 72입)	허성도 (중어중문학과 68입)	대한사료	세아이온형문화재단	세아이온형문화재단	ASSET PLUS투자자문
김영섭 (3 Plus Logistics 회장)	송명철 (전기공학과 62입)	한규범 (AMP 42기)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수의사회	세아장학재단	세아장학재단	E1
김영수 (법학과 67입)	송미순 (간호학과 70입)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세아해양기술장학재단	세아해양기술장학재단	Evagi(이아기) CAFÉ
김영수 (기악과 48입)	송상영 (회학과 55입)	한기준 (의학과 52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통운	세진에프알에스	세진에프알에스	GM
김영심 (불어불문학과 故 오현우 교수의 부인)	송상현 (법학과 59입)	한동연 (경영학과 85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셀리드	셀리드	Goldman Sachs
김영업	송인철 (SPARC 14기)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송우재단	송우재단	KDB대우증권
김영윤 (토목공학과 62입)	송학민 (법학과 59입)	한옥희 (회학과 79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통운	송천재단	송천재단	KEILCO(KEPCO ILJAN CORPORATION)
김용복 (농업교육과 동문의 부)	신수경 (기악과 59입)	한정희 외 3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송파재단	송파재단	KRX국민행복재단
김용재 (외과대학 60입)	신영길 (계산통계학과 78입)	홍원자 (임학과 故 윤관운의 부인)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수경출판사	수경출판사	KTB투자증권
김용철 (치의학과 55입)	신영주 (이남정 대표)	홍길표 (컴퓨터공학부 홍지명의 부)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수석문화재단	수석문화재단	KTE
김용중 (약학과 64입)	신옥진 (부산공간화랑 대표)	홍병라 (정치학과 55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수암장학문화재단	수암장학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김의신 (의학과 60입)	신익현 (임학과 79입)	홍성관 (사회사업학과 63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수익과대학 교수일동	수익과대학 교수일동	LG유플러스
김의영 (경제학과 54입)	신정택 (최고경영자과정 48기)	홍예표 (치의학과 65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스키부 동문회 일동	스키부 동문회 일동	최혁영 장학회
故 김인제· 故 최성순 가족	신혜은 (가정학과 47입)	홍정희 (회화과 65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서울레이선테크	서울레이선테크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동창회
김인준 (경제학과 67입)	신효영· 신승연 (故 신광현 교수의 가족)	황지준 (화학교육과 74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신라교역	신라교역	카일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
김정기 (약학대학 69입)	신희명 (물리교육과 49입)	황귀목 (제약학과 故 국제호 교수의 부인)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신앙머그	신앙머그	케이.씨.텍
김정희 (간호학과 52입)	신희택 (법학과 71입)	황재홍 (치의학과 90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코오롱
김철수 (법과대학 52입)	심계천 (천마큰크리트공업 대표이사)	히로나카 헤이스케 (히버드대 명예교수)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신신장학재단	신신장학재단	크로엔리서치
김철호 (외교학과 70입)	심소일 (상학과 49입)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신홍	신홍	트러스론자신운용
김춘길 (화학생물공학부 58입)	심재성 (前 성보산업 자문위원)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심명문화재단	심명문화재단	특수건설
김태유 (자원공학과 70입)	심창구 (제약학과 67입)	Peter S. Kim (MIT 교수)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우림피앤피	우림피앤피	패션그룹형지
김택수 (법학과 48입)	안상근 (경제학부 91입)	Stanley Choy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미래에셋	미래에셋	포니정장학재단
김하서· 김영중 (회학과 63입· 약학과 64입)	안영경 (前 한디소프트 고문)	강스탬바이오테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미래와도전	미래와도전	포유먼
김하재 (서양학과 故 하동철 교수의 부인)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호의 모)	강신산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미래의동반자재단	미래의동반자재단	풀무원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호의 모)	거병그룹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민국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프리미어퍼트너스
	안창원 (AMP 68기)	건일제약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민들사	민들사	피앤에스케이
	양운근 (전자공학과 79입)	건화엔지니어링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민호기 교수 유가족	민호기 교수 유가족	하이에어코리아
	양찬식	경기도인재개발원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비버패션	비버패션	한국PDA
	염병문 (외교학과 60입)	경남기업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바이로메드	바이로메드	한국SMC
	염영섭 (회학과 66입)	경암교육문화재단	허영진 (SPC그룹 회장)	대한유화	바이오메티에이	바이오메티에이	한국간연구재단

김학봉 (한영요업 회장)	오경민 (경제학과 67입)· 오선희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강영82출구명대이	방송문화진흥회	에리트베이지	한국거래소
강신자 (간호학과 59입)	김현 (의과대학 60입)	오세혁 (약학과 61입)	경제학과 무역학과 82입 동기회	엑스베지	한글출판사	한글출판사
고광우 (행정학과 53입)	김형희 (간호학과 59입)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입)	계수산업	법대 39회 동문 일동	연강재단	연강재단
고은숙 (약학과 60입)	김형준 (전자계산기공학과 78입)	오승환 (의학과 56입)	고려아연	법대 84학번 동기회	영림입업	영림입업
고은석 (물리학과 47입)	김예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호 · 오양호 (행정학과 69입· 법과대학 80입)	공보조선	법대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오벨	오벨
고재광 (지구과학교육과 동문의 부)	김희복 (생물교육과 75입)	오진규 (서양학과 76입)	공영토건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오우기	오우기
고정택 (외교학과 62입)	나용인	유도진 (경영학과 76입)	과천시야향장학회	법무법인 광장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고주 노동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입)	육신화 (가정관리과 68입)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법무법인 비른	한국세표주연구재단	한국세표주연구재단
故 권명덕 변호사 유가족 (한자영· 권성현· 권성희)	남정현 (건축학과 57입)	육치준 가족 일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법무법인 세종	한국알루미늄	한국알루미늄
권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노명호 (토목공학과 61입)	우두현 (상학과 61입)	관사장학회	법무법인 율촌	한국알웨이	한국알웨이
곽수근 (경영학과 73입)	노태원 (물리학과 76입)	우철구 (영어영문학과 33입)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법무법인 케이씨엘	한국외국인학교	한국외국인학교
구범진 (중앙사학과 87입)	류무중 (중어중문학과 53입)	유동원(공업화학과 94입)· 소영순	과천시야향장학회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故 구영택 교수 유가족	미국경 (공업교육과 68입)	유성숙 (고고미술사학과 故 김원용 교수의 부인)	구원장학재단	법무법인 화우	한국전파기자국	한국전파기자국
구영배 (자원공학과 85입)	마인경 (지리학과 56입)	유효선 (의류학과 70입)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일동	벨벳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구인환 (국어교육과 50입)	마인경 (지리학과 56입)	윤계성 (상학과 64입)	국방과학연구소	유니베라	유신	유신
구이일 (경제학과 61입)	문학진 (회화과 49입)	윤덕우 (경제학과 58입)· 최덕자	국영지연엔 G&M	유니베라	유리세이븐스트리트	유리세이븐스트리트
구재서	문희성· 박중식 (전기공학과 53입· 가정교육과 54입)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국제종합물류	유한재단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권민 (식품영양학과 00입)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입)	윤세인 (수의학과 59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유한재단	신법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신법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권세일 (화학부 동문의 부)	박영호 (불어불문학과 52입)	윤여순	김영사	신법대학 수학교육과 동문회	부경양돈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권숙일 (물리천문학부 54입)	박민식· 박금옥 (수의과대학 65입· 체육교육과 63입)	윤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입)	김정문일로에	부경양돈협동조합	한일은행	한일은행
권업태 (약학과 55입)	박병주 (약산스테이트 회장)	윤홍식· 최재영	까시미아	부경양돈협동조합	한일엔파워	한일엔파워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입)	박봉근 (수의학과 76입)	이진우 (기계공학과 74입)	이시바이오	부경양돈협동조합	한일엔파워	

2019.3.1. ~ 2019.5.31.	약정	출연 단위: 원
인터파크 (이기형 회장)	1,000,000,000	100,000,000
SK그룹 SV위원회 (이형희 위원장)	950,000,000	950,000,000
메가스터디교육 (손주은 회장)	872,801,020	872,801,020
풍림무악 (이정석 대표이사 사장)	375,297,180	375,297,180
웅온장학재단 (조락교 이사장)	252,000,000	252,000,000
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		250,000,000
DB김준기문화재단 (이근영 이사장)	219,000,000	219,000,000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200,000,000
이현재 (제16대 총장)	150,000,000	150,000,000
차영선	130,000,000	130,000,000
형애장학회 (최효중 이사장)	107,028,500	107,028,500
구의일 (경제학과 61입)	100,000,000	100,000,000
덕산에코빌 (박범주 대표)	100,000,000	100,000,000
벨벳 (김용민 대표)	100,000,000	100,000,000
셀리드 (강창을 대표)	100,000,000	100,000,000
플라톤아카데미 (최창원 이사장)	100,000,000	100,000,000
리더스코스메틱 (김진구 대표이사)		100,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박준형 이사장)	85,865,000	85,865,000
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김원일 대표)	75,978,000	75,978,000
TOYOTA MOTOR CORPORATION (요시다 아카히사 대표이사 사장)		70,000,000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이사)	66,000,000	66,000,000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60,000,000
세진에프알에스 (라쿠치나 서울대점) (이시형 대표이사)		57,300,000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50,000,000	10,000,000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	36,252,000	36,252,000
우덕재단 (허정섭 이사장)	34,142,000	34,142,000
삼성복지재단 (이수빈 이사장)	33,112,500	33,112,500
AMP 86기	33,000,000	33,000,000
스파르키오모파마 (박승범 대표이사)	33,000,000	33,000,000
삼성꿈장학재단 (노성태 이사장)	32,500,000	32,500,000
양성수 (국제경제학과 91입)		28,247,747
정병대 (사회학과 71입)	26,000,000	26,000,000
최혁영장학회 (최혁영 회장)	25,774,000	25,774,000
유비벨룩스 (이홍복 대표이사)	25,000,000	25,000,000
장하나	24,000,000	24,000,000
Eyagi CAFE (김용순 대표)	22,500,000	22,500,000
구원장학재단 (이우인 이사장)	21,600,000	21,600,000
이경우 (재료공학부 교수)	20,100,000	20,000,000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20,000,000	20,000,000
세양정공 (유병현 대표이사)	20,000,000	20,000,000
민경훈 (법학과 78입)	20,000,000	20,000,000
진학사 (신원근 대표)	20,000,000	20,000,000
미래국제재단 (김선동 이사장)		20,000,000
상암주유소 (홍성관 대표)		20,000,000
현재단 (차과대학 77입)		20,000,000
손욱동 (화학생활공학부 학생의 학부모)	20,000,000	
리앤원 (원재연 이사장)	15,100,000	15,100,000
김영윤 (토목공학과 62입)	15,000,000	15,000,000
농생대 85년 입학생 일동	15,000,000	15,000,000
메디힐장학재단 (권오섭 이사장)	14,400,000	14,400,000
정은오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14,260,000	2,000,000
농어촌희망재단 (정명채 이사장)	14,000,000	14,000,000
비오지노비 (이도훈 대표이사)	14,000,000	7,000,000
이유재 (경영학과 교수)		13,460,793
관상장학회	12,000,000	12,000,00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이사)	12,000,000	12,000,000
이규철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12,000,000	3,000,000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11,324,000	11,324,000
성육문화재단 (이화일 이사장)	11,117,000	11,117,000
김준영 (법학부 99입)	11,000,000	1,000,000
본술김중환장학재단 (김중환 이사장)	10,842,000	10,842,000
정중호 (국제학과 교수)		10,760,000
김성근 (화학과 교수)	10,600,000	10,000,000
협성문화재단 (박석귀 이사장)	10,448,000	10,448,000
ACAD 국가정책과정 총동창회 일동	10,000,000	10,000,000

김병로 (토목공학과 64입)	10,000,000	10,000,000
김종학 (생명과학부 학생의 학부모)	10,000,000	10,000,000
대한유화 (이순규 회장)	10,000,000	10,000,000
더랩 (김나영 대표)	10,000,000	10,000,000
리제과 (전기공학과 72입)	10,000,000	10,000,000
바바패션 (문인식 회장)	10,000,000	10,000,000
박금남 (약학과 86입)	10,000,000	10,000,000
박유정 (아동가족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송삼영 (체육교육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0	10,000,000
신영길 (컴퓨터공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섀텍 (김경태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이병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10,000,000	10,000,000
이정희 (경영학과 79입)	10,000,000	10,000,000
리낙신 (약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채유정	10,000,000	10,000,000
최현식 (체육교육과 17입)	10,000,000	10,000,000
코디스미디어 (오대영 대표)	10,000,000	10,000,000
크립토믹 (천정화 대표)	10,000,000	10,000,000
토니모리 (배해동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한영철 (치의학과 71입)	10,000,000	10,000,000
허천 (공과대학 60입)	10,000,000	10,000,000
혜준 (김준경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ASP 세계경제최고전락과정 제36기 동문		10,000,000
그린교역 (김태준 대표)		10,000,000
농우바이오 (이병길 대표이사)		10,000,000
동화산업장학재단 (문대원 이사장)		10,000,000
아시아종묘 (류경오 대표이사)		10,000,000
엔에스브이 (윤은중 대표)		10,000,000
우리기술 (노갑선 대표이사)		10,000,000
조준호 (경제학과 82졸)		10,000,000
파이오링크 (조영철 대표이사)		10,000,000
한국SMC (나카타 슈지 대표)		10,000,000
김문숙 (간호대학 87입)	10,000,000	
주경숙 (법학과 72입)	10,000,000	
나남 (조상호 회장)	9,630,000	9,630,000
김인식 (의학과 60입)	9,037,748	9,037,748
김현근 (서어서문학과 교수)	9,000,000	9,000,000
김경한 (외교학과 62입)	9,000,000	9,000,000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		9,000,000
정현재단 (서민석 이사장)	8,994,000	8,994,000
장구 (수의학과 교수)	8,898,540	8,898,540
이경욱 (경영학과 교수)		8,858,370
박승범 (화학부 교수)		8,820,002
강신산업 (박성수 대표이사)	8,771,000	8,771,000
APSLA	8,510,560	
성남시장학회 (이상선 이사장)	8,415,000	8,415,000
한재장학재단 (이한오 이사장)	8,415,000	8,415,000
성동구청 (김중태 이사장)	8,000,000	8,000,000
한승학회 (이재영 이사장)		8,000,000
권성훈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7,980,000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670,000
로리앙 (이충희 대표이사)	7,500,000	7,500,000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	7,500,000	7,500,000
일산장학회 (이영환 이사장)	7,500,000	7,500,000
김성애 (AFP.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7,500,000
엔디엔피 (임수아 대표)	7,280,000	7,280,000
노영호 (토목공학과 61입)	6,777,748	6,777,748
황이석 (경영학과 교수)		6,772,500
강승환 (간호학과 교수)		6,003,000
정윤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6,000,000	6,000,000
홍산장학재단 (천영주 이사장)	6,000,000	6,000,000
고봉찬 (경영학과 교수)		5,828,571
이용환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5,514,000
박남규 (경영학과 교수)		5,451,000
CJ제일제당 (손경식 회장)	5,000,000	5,000,000
GIP38기 이영채	5,000,000	5,000,000
강호대학 1975 졸업동기	5,000,000	5,000,000
기아자동차 (이형근 부회장 · 박한우 사장)	5,000,000	5,000,000
박말갑동 (정용선 대표)	5,000,000	5,000,000
수석문화재단 (강정석 이사장)	5,000,000	5,000,000
오이코스 (배정영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창동신 (약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서울대학교 동우회		5,000,000
오강욱 (경제학과 56입)		5,000,000
육심강 (경제학과 81입)		5,000,000
지형준 (약학대학 명예교수)		5,000,000
한성티앤아이 (황인성 대표이사)		5,000,000
도기준 (치의학과 04입)	5,000,000	1,000,000
서울대 SPARC 34기	5,000,000	
정요근 (국사학과 교수)	5,000,000	
농업회사법인우리씨드 (박공영 대표이사)	4,935,000	4,935,000
신중계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4,800,000
최영진 (농생명공학부 교수)	4,800,000	
최혁 (경영학과 교수)		4,680,000
지디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박찬정 대표)	4,000,000	4,000,000
형남진장학재단 (이정희 이사장)	4,000,000	4,000,000
김건호 (수의학과 70입)		4,000,000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		4,000,000
서울대학교 여우회		4,000,000
용화당학원원 (김현동 원장)		4,000,000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		3,900,000
이성현 (불어불문학과 교수)	3,600,000	
진양제약 (최은환 회장)	3,400,000	3,400,000
이현표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3,333,300
강승희 (경제학부 학생의 학부모)	3,000,000	3,000,000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3,000,000	3,000,000
뉴술루선	3,000,000	3,000,000
마리아 글라우디아 (서어서문학과 교수)	3,000,000	3,000,000
범석학술장학재단 (박준숙 이사장)	3,000,000	3,000,000
송천재단 (류덕희 이사장)	3,000,000	3,000,000
시흥시교육청초소년재단 (강경희 이사장)	3,000,000	3,000,000
아이들과미래재단(이훈규 이사장)	3,000,000	3,000,000
황인경 (생활과학대학 명예교수)	3,000,000	3,000,000
김정희 (서양학과 교수)		3,000,000
김종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3,000,000
박태호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3,000,000
원진금속 (이시연 대표이사)		3,000,000
전병룡 (정책학과 학생의 학부모)		3,000,000
정헌치		3,000,000
코람코자산신탁 (이우철 회장)	2,998,000	2,998,000
한국방정환재단 (이상경 이사장)	2,876,800	2,876,800
남애장학재단 (정병훈 이사장)	2,500,000	2,500,000
한승장학회 (이재영 이사장)	2,500,000	2,500,000
KT&G 남서울본부 (박정욱 본부장)		2,500,000
박진용	2,500,000	
심백희진식장학재단 (윤연우 이사장)	2,442,000	2,442,000
서경석 (외과학교실 교수)		2,400,000
김남일 (생물교육과 75입)	2,000,000	2,000,000
김도영 (Global MBA 1기)	2,000,000	2,000,000
민기복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2,000,000	2,000,000
바이오라인 (권동일 대표이사)	2,000,000	2,000,000
신후성 정대경 (경제학과 55입)	2,000,000	2,000,000
이강재 (중어중문학과 교수)	2,000,000	2,000,000
이경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2,000,000	2,000,000
이투스이씨아이 (이중서 대표)	2,000,000	2,000,000
주식회사 봉봉 (김중희 대표)	2,000,000	2,000,000
진미정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2,000,000	2,000,000
최수영 (제약학과 97졸)	2,000,000	2,000,000
현대영어사 (윤근 대표이사)	2,000,000	2,000,000
김우진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00,000
류관희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2,000,000
박정일 (약학과 교수)		2,000,000
유박영 (웰에이징시니어산업)		2,000,000
정영복 (국제학과 교수)		2,000,000
한균희 (제약학과 42회 졸)		2,000,000
홍병희 (화학부 교수)		2,000,000
신한식 (경제학과 89입)	2,000,000	
이행남 (철학과 교수)	2,000,000	
강민구 (법학과 77입)	1,800,000	
한옥희 (화학과 79입)	1,800,000	
피플스 (윤성중 대표)	1,632,000	1,632,000
KRX국민행복재단 (정지원 이사장)	1,500,000	1,500,000
김정환 (제약학과 90입)	1,500,000	1,500,000
문주 (미술대학 학장)	1,500,000	1,500,000

박용선 (물리·천문학부 교수)	1,500,000	1,500,000
이현실 (제약학과 90입)	1,500,000	1,500,000
정산장학재단 (김용곤 이사장)	1,500,000	1,500,000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		1,500,000
선현 (과제선 이사장)	1,305,000	1,305,000
하이트진로출딩스 (김인규 대표이사)	1,200,000	1,200,000
설배환 (역사교육과 93입)	1,200,000	
중앙도서관 작은전시회	1,170,000	1,170,000
고희창 (경제학부 학생의 학부모)	1,000,000	1,000,000
구영주 (생물교육과 72입)	1,000,000	1,000,000
구윤모 (응용공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구창휘 (약학대학 64입)	1,000,000	1,000,000
김범준 (경제학과 89입)	1,000,000	1,000,000
김형성 (행정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김창곤 (국악과 97입)	1,000,000	1,000,000
김형민 (기계항공공학부 04입)	1,000,000	1,000,000
남윤자 (의류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김병근 (국어교육과 교수)	1,000,000	1,000,000
박민주 (경영대학 06입)	1,000,000	1,000,000
박성근 (공법학과 86입)	1,000,000	1,000,000
박은경 (경제학부 96입)	1,000,000	1,000,000
박은준 (간호학과 89입)	1,000,000	1,000,000
박인천 (경제학과 89입)	1,000,000	1,000,000
박종규 (법과대학 65입)	1,000,000	1,000,000
박창호 (약학대학 56졸)	1,000,000	1,000,000
법무법인 서울 (김중서 변호사)	1,000,000	1,000,000
안태진 (경영학과 06입)	1,000,000	1,000,000
양민영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94입)	1,000,000	1,000,000
여경구 (치의예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	1,000,000
오덕근 (경제학과 53입)	1,000,000	1,000,000
오성장학회 (최무영 이사장)	1,000,000	1,000,000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1,000,000	1,000,000
원우현 (법과대학 61입)	1,000,000	1,000,000
이남한 (한국총재연구소 소장)	1,000,000	1,000,000
이명근 (경제학과 89입)	1,000,000	1,000,000
이상일 (이상일이빈인후과 원장)	1,000,000	1,000,000
이석호 (생리학교실 교수)	1,000,000	1,000,000
이재원 (법학부 06입)	1,000,000	1,000,000
이정훈 (물리·천문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이지혜 (간호학과 01입)	1,000,000	1,000,000
이혜숙 (영어교육과 84입)	1,000,000	1,000,000
전수안 (법학과 71입)	1,000,000	1,000,000
조종수 (농생명공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주승재 (제약학과 90졸)	1,000,000	1,000,000
차대원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의 학부모)	1,000,000	1,000,000
참회계법인 (김성근 대표)	1,000,000	1,000,000
최성배 (기계공학과 82입)	1,000,000	1,000,000
최종학 (경영학과 교수)	1,000,000	1,000,000
황덕순 (상정관리학과 72입)	1,000,000	1,000,000
황인주 (간호학과 96입)	1,000,000	1,000,000
강성철 (경제학부 89입)		1,000,000
공명근 (건축학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
김광성 (경영전문대학원 73입)		1,000,000
김명수 (경제학과 89입)		1,000,000
김재완 (경제학과 89입)		1,000,000
박정우 (경제학부 89입)		1,000,000
이재선 (경제학과 89입)		1,000,000
김종국 (통계학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	
서성혁 (체육교육과 82입)	1,000,00	

서울대학교
기부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악회에 초청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회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관악 캠퍼스에서
음악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겨보십시오. 감성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음악을 통해 여유롭고 따뜻한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 공연 연혁

2010. 10.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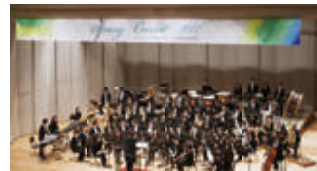
2011. 6.
June Concert 2011



2011. 11.
베르디 오페라 갈라 콘서트



2012. 5.
Spring Concert 2012



2012. 11.
오페라 '라 보엠'



2013. 5.
Spring Concert 2013



2013. 10.
오페라 '돈 파스칼레'



2015. 10.
오페라 '마술피리'



2016. 9.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



2017. 10.
오페라 '돈 조반니'



본 공연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주관으로 1천만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한 예우 프로그램입니다.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한
공연 소개와 만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새롭게 준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예우팀 02-871-1633 | snuf@snu.ac.kr

세
계
평
화
와
정
의
를
외
치
다

삶도 나의 욕심이요, 의도
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는 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907. 4. 20.
〈생존의 경쟁〉 강연 중



故 이준 열사

서울법대의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1회로 졸업한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외척 세력을 기소하고 황제의 친척에게 10년을 구형하는 강직함을
보였다.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특사로
파견되어 세계 평화와 정의를 호소하다 그곳에서 순국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T. 02-880-9071

F. 02-876-5480

www.snu.ac.kr